

고향사랑기부 기대 'UP'

전북도, 전북현대와 '고향사랑기부 인증 이벤트'
추첨 통해 월드컵 국가대표 친필 사인볼 증정

전북도는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해 전북현대모터스(이하 전북현대)와 협력해 '전라북도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인증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부인증 이벤트는 기부자에게 국가대표 친필 사인볼을 증정하는 내용이다. 3월 1일부터 31일까지 31일간 전라북도 공식 인스타그램(@jnbukstar)에서 진행된다.

참여방법은 기간 내 전북도청 본청 또는 도내 14개 시·군에 기부하고 전라북도 인스타그램 이벤트 게시물에 '기부완료' 댓글 등록 후, 인적 사항과 기부금 영수증을 '네이버폼'으로 제출하면 된다.(네이버폼 제출 방법: 전라북도 인스타그램 이벤트 게시물에 URL 게시)

이벤트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2022 카타르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인 조규성, 백승호, 김민환,



김진수, 송민규 선수의 친필 사인볼을 제공한다.

도민뿐만 아니라 출향민 전북에 관심을 갖고 있는 타 시·도민들도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북현대 인스타그램과 14개 시·군 누리집, 사회관계망(SNS) 등을 활용해 이벤트를 홍보할 계획이다.

전북현대 축구팬 A씨는 "고향사

랑기부제에 대한 취지에 공감하고 이번에 좋아하는 선수의 사인볼까지 받을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된다고 하니 기부에 꼭 참여할 생각이다"며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황철호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제도 시행 2달 여 만에 전북도 총모금액이 14억원을 돌파했고, 꾸준히 따뜻한 기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며, "기부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이번 이벤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제도 정착에 다방면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가 가능하고,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액의 30%에 상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온라인 고향사랑음(www.ilovego.hyang.gokr) 사이트와 전국 NH농협을 방문(신분증 지참)해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

/김재훈기자

태권도, 해외에 널리... 2023 태권도 봉사단원 모집

태권도진흥재단, 내달 24일까지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 이하 재단)은 해외에서 대한민국과 태권도를 알릴 '2023 태권도 봉사단'을 3월 24일까지 모집한다.

태권도 봉사단은 태권도 수련자들을 해외로 파견해 태권도 보급과 국제체육계 및 개발협력 분야에서 대한민국과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활동단이다.

2022년에는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호주, 폴란드, 볼리비아, 르완다 등 6개국에 22명을 파견했으며 올해는 50여 명의 봉사단원을 모집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만 19~34세, 태권도 3단 이상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하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국제개발협력 기초와 성인지 교육 등 1차 소양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면접 및 실기전형 합격 후에는 태권도원에서 집합 교육 등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해 태권도 봉사단원들의 개인 역량을 강화한다.

지난해 호주로 봉사단 파견을 다녀온 윤모(27, 5단)씨는 "현지에서 느끼는 태권도 위상은 정말 대단했고 이를



호주 캔버라에서 태권도 봉사단원들이 엘리트 선수 육성 프로그램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사진 왼쪽) 르완다 키갈리에서 태권도 봉사단원들이 태권도 지도를 하고 있는 모습.



비판으로 대한민국 태권도를 알리는데 기여했다는 자부심이 매우 크다"라며 "지금은 태권도를 수련한 한 명의 청년일지라도 태권도 봉사단 활동을 통해 새로운 나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에 꼭 도전하라"는 말을 전했다.

재단은 봉사단원들을 대상으로 태권도 지도와 한국문화 전파 등의 활동뿐만 아니라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국제개발협력력을 위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봉사단원들이 국가 간 협력요원으로서의 역할 수행도 기대하는 등 태권도를 통해 대한민국과 파견국이 가까워지는 실질적

인 계기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재단 오응환 이사장은 "태권도 봉사단 파견 국가 선정은 단원들의 안전, 태권도 위상 강화 및 저변 확대 기여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계획"이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해 태권도를 알릴 우리 봉사단의 안전과 편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2 태권도 봉사단 22명은 파견 국가에서 3개월여 동안 각종 대외 태권도 대회 지원과 장애인 및 난민 태권도 지도 등 ESG 관련 활동을 통해 개발협력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2023 FIFA 여자월드컵 트로피투어

27일 서울 강남구 스타필드 코엑스홀에서 열린 2023 FIFA 여자월드컵 트로피투어 행사에서 케서린 레이퍼(왼쪽부터) 주한 호주 대사, 콜린벨 대표팀 감독, 최유리, 홍은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사라 갠도인(Gandoin Sarah) FFA 시절단 대표, 지소연, 박정민 주한 뉴질랜드 대사대리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여자농구 김단비, MVP 받을까... 내달 6일 시상

이번 시즌 FA로 우리은행 이적해 독주 이끌며
라운드 MVP 3회 · 트리플더블 3회... MVP 유력

여자프로농구 베테랑 김단비(33·우리은행)가 생애 첫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에 도전한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다음달 6일 영등포구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신한은행 SOL 2022~2023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27일 전했다.

정규리그 MVP, 베스트5 등은 기자단 투표를 통해 선정된다. 투표는 이날 오후 2시 마감됐다.

아산 우리은행의 정규리그 1위를 이끈 김단비의 첫 MVP 수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수상이 매우 유력하다.

김단비는 비시즌 자유계약(FA)을 통해 인천 신한은행을 떠나 우리은행으로 전격 이적했다. 이번 시즌 화두가 김단비의 이적일 만큼 임팩트가 컸다. 기대에 부응했다.

김단비는 정규리그 최종전을 남겨둔 가운데 29경기에 모두 출전해 평균 32분16초를 뛰며 17.2점 8.9리바운드 6.2어시스트 1.5스틸 1.3블록슛을 기록했다.

전전후다. 주요 지표에서 거의 상위권에 자리했다. 득점 3위 리바운드 5위, 어시스트 2위, 스틸 3위, 블록슛 1위, 공헌도 1위에 자리하고 있다 리바운드를 제외하면 모두 팀 내 1위다.

이런 활약에 힘입어 이번 시즌 트리플더블을 세 차례 기록했고, 라운드 MVP 역시 3회 수상했다.

화려한 개인 기록에 정규리그 1위에 오른 압도적인 팀 성적이 조화를 이루



경기에 임하고 있는 김단비.

사실상 경쟁자가 없다는 게 현장의 평가다.

2007~2008시즌 신한은행에서 데뷔한 김단비는 데뷔 시즌부터 2011~2012시즌까지 5회 연속 통합우승을 경험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전주원, 정선민, 최윤아, 하은주 등 쟁쟁한 선배들을 돕는 조연이었다.

팀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한 이후에는 우승 트로피와 인연이 없었다. 이번 시즌 정규리그 1위가 2011~2012시즌 이후 무려 11년 만이다.

이번 정규리그 시상식에는 2018~2019시즌 이후 4시즌 만에 6개 구단 전 선수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상식 이후에는 같은 장소에서 플

레이오프 미디어에이가 열린다.

정규리그 1위 우리은행을 비롯해 아직 최종순위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된 부산 BNK, 인천 신한은행, 용인 삼성생명이 참가한다.

정규리그 시상식과 플레이오프 미디어에이는 각각 오전 11시와 오후 2시부터 KBSN 스포츠, MBC스포츠플러스를 통해 생중계된다. 네이버스포츠, 아프리카TV, WKBL 앱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뉴시스

남원시 태권도 승단
승품심사 대회 개최

겨울의 끝자락 2월의 마지막 주말, 스포츠명품도시 남원시는 동계 검도 대회에 이어 지난 25일부터 2일간 춘향할 체육관에서 태권도 승단·승품심사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유치부에서 일반부까지 도내 각 체육관에서 묵묵히 실력을 쌓아온 선수들과 학부모 및 지도자들 약 7,000여 명이 함께한 이번대회는 선수들의 뜨거운 땀방울과 우렁찬 기합소리가 가득 찬 가운데 시종일관 관중들의 열기가 더해져 흥미진진한 경기가 진행되었다.

남원시태권도협회 주관하고 남원시가 후원한 이날 심사대회는 1단~3단 승단심사와 기본봉작, 연걸발차기, 품새겨루기 등 1품~4품 승품심사로 치러졌으며 어린이 가족단위 동반자가 많아 숙박업소와 식당 등이 모처럼 활기를 띠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